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루카 14,13-14)



〈죄인들의 식사〉, 지거 퀴더 신부 작

**[제1독서]** ..... 집회서 3,17-18.20.28-29

**[화답송]** ..... 시편 68(67),4와 5ㄱㄴ.6-7ㄴ.10-11  
(© 11ㄴㄴ 참조)

◎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 의인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리라.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너희는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주님이시다. ◎
-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사로잡힌 이들을 행복으로 이끄시네. ◎
- 하느님, 당신은 넉넉한 비를 뿌리시어, 메말랐던 상속의 땅을 일구셨나이다. 당신 백성이 그곳에 살고 있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마련하셨나이다. ◎

**[제2독서]** ..... 히브리서 12,18-19.22-24ㄱ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

**[복음]** ..... 루카 14,1.7-14

**[성가 안내]**

- 입당성가: [24] 내 맘의 천주여
- 봉헌성가: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512] 주여 우리는 지금
- 성체성가: [498] 예수여 기리리다 [190] 지존하신 성체
- 파견성가: [39] 하나되게 하소서

###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sup>1</sup>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sup>7</sup> 예수님께서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sup>8</sup> “누가 너를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sup>9</sup>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 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sup>10</sup>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sup>11</sup>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sup>12</sup>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sup>13</sup>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sup>14</sup>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On a sabbath Jesus went to dine at the home of one of the leading Pharisees, and the people there were observing him carefully.

He told a parable to those who had been invited, noticing how they were choosing the places of honor at the table.

“When you are invited by someone to a wedding banquet,

do not recline at table in the place of honor.

A more distinguished guest than you may have been invited by him, and the host who invited both of you may approach you and say, ‘Give your place to this man,’

and then you would proceed with embarrassment

to take the lowest place.

Rather, when you are invited, go and take the lowest place

so that when the host comes to you he may say,

‘My friend, move up to a higher position.’

Then you will enjoy the esteem of your companions at the table.

For every 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but the on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Then he said to the host who invited him,

“When you hold a lunch or a dinner,

do not invite your friends or your brothers

or your relatives or your wealthy neighbors,

in case they may invite you back and you have repayment.

Rather, when you hold a banquet,

invite the poor, the crippled, the lame, the blind;

blessed indeed will you be because of their inability to repay you.

For you will be repaid at the resurrection of the righteous.”

### 오늘의 묵상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초대받거든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시며, 겸손하게 행동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겸손해야만 하는 것은 나에게 건네시는 하느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함이며, 이웃을 통해 전해 주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함이지요. 겸손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남을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나아가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버려야 하지요.

이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 안에 잠재된 사심과 계산적인 마음을 버리기를 촉구하십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행위의 순수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누구에게 선물하고, 누구를 초대하는 그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도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게 되고, 상대방이 보답을 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질 수도 있지요. 만일 이렇게 된다면 내가 베푼 선행의 순수성을 잃게 될 위험마저 있지 않습니까?

둘째, 예수님께서서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도록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외적으로 가난한 것보다 더욱 심각한 현상은 마음이 피폐해 영혼이 가난한 것이지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풍요해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 ‘와서 보시오!’ 주제로 120여명 참가

제1회 동중부 한인 가톨릭 성소대회가 지난 20일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본당에서 개최됐다. 알링턴 교구가 주최한 이 행사는 ‘와서 보시오!’를 주제로 하느님의 부르심이나 선택을 뜻하는 성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한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한국어 발표는 본당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신부, 이상진 (아모스) 신부(서울 대교구 소속, 미국 카톨릭 대학교 교회법 유학 중), 고 마르띠나 수녀(성 가정의 작은 자매회 성소 담당) 등이 맡았고, 영어 발표는 조셉 김 (Joseph Kim) 신부(캘리포니아 산호세 교구 성소국장), J.D. 제피(J.D. Jaffe) 신부(알링턴 교구 성소국장), 머나 토딜로 (Myrna Tordilo) 수녀(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아시아 태평양계 다문화국 부국장)가 담당했다.

약 120명이 참가한 이번 성소대회는 지난 17일 임기를 마친 정인준 (파트리치오) 전 주임신부가 올해 초부터 준비하여 알링턴 교구 성소국과 다문화국의 협력하에 기획됐다. 본당을 대표하여 이 행사를 기획하고 본당과 교구 사이에서 업무 협조를 담당한 이토마스 형제는 “첫 행사인 만큼 여러가지 시행 착오와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며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에 참가자들의 미사 봉헌으로 시작되어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부터 25분의 주제 발표와 5분의 휴식 시간으로 구성된 6개의 강론이 오후 4시까지 한국어와 영어로 본당과 친교실에서 각각 준비되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진행됐다.

성원경 신부는 첫 번째 한국어 주제 발표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성소를 도와주는 방법으로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 주며 무엇보다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어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고 마르띠나 수녀는 “성소 식별의 가장 큰 기준은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평화를 주는 참행복인지를 깨닫는 것으로 기도를 통해 대답을 얻기 바란다”라며 “수도자로서의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행복의 연속이다”라고 고백했다. 이상진 신부는 ‘본인이 얼마나 열망하는가’를 성소 식별의 첫번째 조건으로 꼽았다.

발표자들은 주제발표가 끝난 후 질문과 답변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정성스러운 답변을 했으며, 특히 청소년 참가자들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질문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답해 눈길을 끌었다.



## 정인준 파트리치오 주임 신부 귀임 4년간 '말씀의 생활화'에 크게 기여

우리 본당의 7대 주임신부로 지난 4년간 본당 사목을 이끌었던 정인준(파트리치오) 신부가 지난 18일 본국으로 귀임했다. 2012년 9월 부임한 정 신부는 성경 읽기, 성경 공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말씀의 생활화'에 큰 힘을 기울였으며 평일 미사 증설, 우드브리지 미사 신설, 주보 증면, 오전 8시 미사 성가대 신설, 수많은 피정 및 특강 제공 등 활발한 사목활동을 통해 본당 신자들의 영적 신장에 큰 기여를 했다. 이와 함께 본당의 웹사이트를 재정비, 성경 강의 및 주일 미사 인터넷 생중계 등을 통해 전례의 현대화에도 큰 공헌을 했다.

정 신부는 11일 오전 6시에 있었던 송별 미사 강론에서 “떠날 때는 말없이”를 미덕으로 생각하고 조용히 송별 미사 없이 떠나려 했다”며 “어린이처럼 순수하여 감사하고 기쁨에 넘치는 생활로 나를 드러내지 말고 갈림 없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송별 미사에는 이른 새벽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당을 가득 메운 수 백 명의 신자들이 정 신부를 환송했다. 정 신부는 “사랑합니다. 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로 강론을 마쳤다.

이날 미사에 참석한 많은 신자들은 “저희 성당의 미래와 신자들의 영성을 위해 언제나 일일이 손잡아 주시며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던 아버지 같은 신부님을 잊을 수 없다”며 “새 임지에서든 훌륭한 사목을 하시도록 신부님의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정 신부는 한국으로 돌아가 장성 성당에서 사목을 하게 되며, 후임으로 백인현(안드레아) 신부가 부임할 예정이다. 정인준 신부의 성 정 바오로 성당에서의 사목 모습은 '정인준 파트리치오 신부님 송별 영상' <https://youtu.be/Bm6EkRtQaPM>에서 볼 수 있다.



## “정 신부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정인준 파트리치오 신부님!  
우리 모든 신자들의 존경과 사랑을 담아 신부님을 불러봅니다. 저희 성당에 부임하셔서 특유의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 공동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신 신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과 함께한 지난 4년, 저희들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신부님은 항상 이곳 공동체의 주인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항상 저희들보다 한 발 앞서 공동체에 필요한 일거리를 찾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망설이면 확신을 주셨고, 강인한 추진력으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역동적으로 사목활동을 하셨지요. 내적으로는 항상 열과 성을 다한 준비된 강론으로 저희들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셨고, 한국학교, 주일학교, 신심 단체들을 지도하시고, 매일 미사를 만드시고, 구역모임에 항상 함께 하셔서 소공동체 모임을 격려하며 이끌어 주셨습니다. 신부님은 또한 본당 어른신들께 친 부모님 대하듯 사랑과 애정을 보이시어 어린 공경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고, 아픈 교우와 불우한 교우들을 수시로 방문하셔서 기도와 위안을 주시고 신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서 한 사람도 소외 되지 않도록 폭넓고 푸근한 마음으로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신부님과 헤어지려고 하니,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고 슬픔이 앞을 가립니다. 저희 본당 신자 한 명 한 명 잊지 마시고 기도속에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로 부임하시는 곳에서도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목자가 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신부님을 위해 기도드리고 기도 속에서 만나 뵈겠습니다. 영육 간에 항상 건강하십시오. 신부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김기봉 마르티노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는 이 본당에서 세례성사와 혼배성사의 은총을 신부님의 인도 아래 받고 지금은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 많은 신자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신앙생활이었지만 신부님의 강론들과 가르침 속에서 하나하나 익혀 나갈 수 있었고, 제대회 봉사, 성가대 찬양 등 신부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의 주일 마지막 강론에서 저희들의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며 걸모습은 많이 아파 보이셨지만 신부님 뒤로는 후광이 보였습니다! 또한 신부님께서 저희 본당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껴 주신 그 마음은 옛 성인, 참제자의 모습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신부님의 그 노력은 꼭 결실을 맺어서 가까운 훗날에 신부님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본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신부님, 새 부임지로 가셔도 항상 건강하시고 기쁘게 사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신부님, 영원한 저의 본당 신부님, 항상 사랑합니다!

권성희 소화 데레사

신부님!  
그동안 성당 발전과 신자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 복음서와 신구약 성경 강의 그리고 매일 복음 묵상은 영혼의 양식과도 같은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명쾌하고도 해박한 성경 해설을 가까이 접할 수 없게 되어 무척 아쉽습니다. 신부님은 말으신 제게 주님의 사명을 다하시는 신부님으로 추억될 것입니다. 부디 영육 간에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윤봉근 도미니코

신부님,  
3년 전 여름 레지오 피정에서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면서 그냥 밀려오는 북받침에 울어버린 저의 손을 집어 일으켜 주신 일을 잊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 암 꼭 낮게 기도해 주며 확신을 주신 신부님, 오늘의 제가 있게 해주신 신부님께 감사의 말씀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면 산행도 따라가 보고 겨울 눈 내리는 날엔 신부님이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눈 노래도 듣고 싶는데 작별의 시간이 왔네요. 저희들에게 항상 기쁘게 살라시는 신부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사제 생활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국영주 발비나

존경하옵 신부님,  
우리 본당의 장래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다른 어떤 신부님도 감히 해내지 못한 일을 용감하게 추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언제나 시원스레 풀려나오는 실처럼 막힘없는 말씀 풀이와 강론도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몹시 아쉽고 안타깝지만 합니다. 앞으로의 신부님께 희망찬 앞날의 기쁨이 준비되어 있으리라 굳게 믿고 매일 미사와 성체조배, 기도 열심히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부디 건강하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차순자 도미니

신부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성경을 읽고 쓰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이 약한 우리들에게 주님 곁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가도록 정신적 지주가 바로 우리들의 신부님이었습니다. 송별 미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새 신부가 시집갈 때처럼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성당의 많은 분들의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무사히 귀국하시어 언제나 영육 간에 건강하시기를 두 손 가지런히 모아 기도드립니다.

천석기 바오로

그동안 굶은일 마다하지 않으시고 항상 낮은 자세로 신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편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험한 길로 나아가시는 모습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깊은 강론과 성사를 본 후에 보속을 주실 때의 정성스러운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동안 신부님의 강론과 보속의 말씀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본당을 위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윤은경 아네스

## 레지오 마리아 꼬미시움 및 꾸리아 월례회의

본당의 대표적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 마리아의 꾸리아 월례회의가 지난 21일 오전 10시 미사 후 하상관에서 개최됐다. 하느님의 어머니 꾸리아(단장 정우진 미카엘)와 은총의 모후 꾸리아(단장 이경구 그레고리오)에 각각 31명, 32명의 브레시디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다음 달 17일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불우이웃돕기 5K 걷기/달리기 대회 협조 문제와 다음 달 25일의 옥외행사 및 홍보의 날에 대한 공지가 있었다.

한편 지난 14일 있었던 꼬미시움(단장 김국 스테파노) 월례회의에서는 37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최됐던 연례봉쇄피정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은총의 모후 꾸리아



하느님의 어머니 꾸리아

## 황금궁전 브레시디움 가두선교



버지니아 한인 사회에 가톨릭 신앙을 알리기 위한 본당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의 가두 선교 활동이 무더위 속에서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황금궁전 브레시디움의 이미숙(데레사) 단장과 3명의 단원들은 지난 21일 오후 센터빌 롯데 식품점 앞에서 쇼핑객들을 상대로 선교 유인물을 돌리며 가톨릭 알리기에 힘썼다. 현재 본당의 레지오 마리아에 7개 팀은 매달 돌아가며 가두선교에 힘을 쏟고 있다.

## 청소년 성가대-성인 성가대 합동 연주



성 정 바오로 성당의 청소년 성가대는 지난 20일 본당에서 열린 성소 컨퍼런스에서 본당 성인 성가대와 함께 연주하는 의미있는 기회를 가졌다. 청소년 성가대 학생들은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합동 연주를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해 화음을 맞췄으며 본당 교우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성가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1 베드로회 정기모임**

• 일시: 8월 28일(일) 오후 1시(B-1,2)

**2 요한회 정기모임**

• 일시: 8월 28일(일) • 대상: 50대 형제 자매  
• 문의: 윤봉근 도미니코 (703) 307-7939

**3 K of C 정기모임**

• 일시: 8월 28일(일) 12:00 (B-1,2)  
• 문의: 김 버나드 (703) 342-2194

**4 K of C 토막 세미나**

• 일시: 8월 28일(일) 오전 11:30 - 12:00 (B-1,2)  
• 주제: 난폭운전 19가지 • 강사: 허 진 변호사  
• 문의: 김 버나드 (703) 342-2194

**5 신앙/영성 세미나(교육부 주최)**

• 일시: 8월 28일(일) 오전 11:30 - 오후 1시 (A-1,2)  
• 고 이태석(요한) 신부님 강의 (동영상)  
• 문의: 윤재원 베드로 (215) 510-7513

**6 불우이웃돕기 5k걷기/뛰기 대회(복지부 주최)**

• 본당 공동체 창설 30주년 기념행사로 실시되는 불우이웃돕기 5k 걷기/뛰기 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9월 17일(토) 오전 7:30 - 오전 10시  
• 신청: 8월 21일 - 9월 11일; 8시, 10시 11:40 미사후 (친교실)  
• 신청비: 1인-\$15, 2인-\$25, 가족-\$40, 도네이션도 받습니다.  
• 문의: 김재호 라우렌시오 (571) 345-5442

**7 병자 영성체**

• 일정: 9월 2일(금)  
• 신청: 조영인 형제 (703)264-0050

**8 파티마 세계 사도직 첫 토요 신심**

• 일시: 9월 3일(토) 오후 6:15

**9 파티마 사도직 쉼모임**

• 일시: 9월 3일(토) 오후 3시 (B-4)

**10 구역임원 교육**

• 일시: 9월 4일(일) 오전 11:30 (B-1,2)

**11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9월 4일(일) 오후 1시 (B-1)

**12 공동체 기도회 모임**

• 일시: 9월 9일(토)은 공동체 기도회의 날입니다.  
• 오후 8시부터 각 공동체별로 실시하오니 해당 공동체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3 하상성인학교 가을학기 개강식**

• 일시: 9월 6일(화) 오전 9:20분 (하상관 #110)  
• 수강생과 강사께서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4 2016 - 2017년도 주일학교 등록**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을 받고 있으니 학부모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등록: 9월 4일까지  
• 등록비: 한 자녀 \$80/ 두 자녀 \$150/ 세 자녀 \$200  
• 신청: 하상관 주일학교 교무실 오전 10시 미사 전후  
• 문의: 윤정 보일 교감 (703) 371-3589

**15 2016 - 2017년도 하상 한국학교 등록안내**

• 입학 대상: 유치부 - 12학년  
• 학사 일정: 2016년 9월 10일 - 2017년 5월 13일  
• 등록접수: 하상관 교무실 (9월 4일까지) 친교실 (8시, 10시 미사 후)  
• 우편 접수: Hasang Korean School,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 학비: 등록비 포함, 첫째 자녀: \$490, 둘째 자녀: \$450 셋째 자녀: \$400  
• 문의: 육옥영 교감 (703) 598-5540

**16 2016년 하상성인학교 가을학기 등록안내**

• 교육 기간: 2016년 9월 6일 - 2016년 12월 4일  
• 등록: 2016년 8월 28일, 9월 4일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오전 9시-12시), 친교실  
• 수강 과목: 컴퓨터기초, 컴퓨터중급(인터넷, 워드), 컴퓨터고급(엑셀,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아이폰, 아이패드, 동양화반(초급, 중급, 미술(빛상), 시민권준비반, 문예창작교실(시), 생활영어, 수지요법(초급, 중급), 손뜨개교실, 한의학 건강상식, 생활교실, 한창교실, 한국무용, 장구반(초급, 중급), 기타 교실(초급, 중급), 스트레칭 요가, 라인댄스  
• 개강일: 2016년 9월 6일(화), 오전 9:20  
• 대상: 전 신자와 일반인 20세 이상  
• 등록금: \$50 (점심 제공)  
• 문의: 김명희 (올리야나) (703) 217-2775

**하상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9월 1일 (목) 오후 9시-11시**

- **가톨릭 소식**: 교황청, 세계, 한국의 주요 가톨릭 소식 종합
- **생명 그리고 사랑**: 첨단 의술을 통한 생명 존중. 협진의 힘으로 폐암을 이기는 부천 성모병원 폐암전문센터
- **명불허전**: 평화방송 명강의 앵글 시리즈. 2009년 차동업 신부의 특강 "뿌리깊은 신앙"
- **인터뷰, 아, 사람**: 화가 김현정 소하 데레사 2부. 한국 전통 회화의 예술과 가톨릭 신앙

 **www.masstimes.org**  
MASS TIMES FOR TRAVEL

**여름 휴가 중 가까운 성당 및 미사 시간 찾기**

\* \* \*

인터넷에서 아래 주소를 입력하면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시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http://www.masstimes.org)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6년 8월 21일 (연중 제21주일)

주일헌금	\$ 7,253.00
교무금	\$ 7,300.00
교무금(신용카드)	\$ 2,690.00
특별헌금	\$ 0.00
2차 헌금	\$ 0.00
<b>합계</b>	<b>\$ 17,243.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투에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전례 및 청소 담당**

8월 28일	라우든2
9월 4일	전례부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중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명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이강영(테오도로),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이창택(비오), 김영식(베드로)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윤벽참(프란치스코),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장동건(스테파노), 장동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용천(요한), 전성호(세레자 요한), 장동길(피터),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엘(마카엘라), 이슬(루시아), 에스터 정(세레나),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8월 28일(일)	연중 제22주일	교육부 세미나 (11:30-13:00, A-12), K of C 정기모임(12:00, B-1,2), K of C 토막 세미나(11:30-12:00, B-1,2), 요한회(11:30, B-3)
8월 29일(월)	성 요한 세례자의 수난 기념일	아침 미사(6:00, 성당)
30일(화)	연중 제22주간 화요일	레지오 마리아 (20:00, 친교실), 성령기도회(20:00, 친교실), 예비자 교리(20:00)
31일(수)	연중 제22주간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9월 1일(목)	연중 제22주간 목요일	아침 미사(6:00, 성당)
2일(금)	연중 제22주간 금요일	병자영성체, 회장단 회의, 저녁 미사(19:30, 성당)
3일(토)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 학자 기념일	아침 미사(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 (9:30, 친교실), 혼배미사(16:00, 성당), 파티마사도직 쉼모임(15:00-16:00, B-4), 파티마 첫 토요신심(18:15-19:15)
4일(일)	연중 제23주일	구역임원교육(11:30, B-1,2), 성모회 임원회의(13:00, B-1), 청소년사도회의 (13:00)

♥ **혼인공시**

◆ **공경석** 자: **공 Patrick(파트리치오)**  
◆ **김성대** 녀: **김혜진**

- 일시: 2016년 9월 3일 (토) 오후 4시
- 장소: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 이 두 사람이 혼인해서는 안될 어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임사제나 교구집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b>Pohanka Acura</b>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b>허진 변호사</b>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18-5404	<b>엘리사벳 백화점</b>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 엘리사벳 703-508-7743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Youngs Health Care Inc.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주택용자, 채용자</b>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b>안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소아전문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엽)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보험/은퇴연금</b>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Euromotor Cars</b>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b>스카이 학원</b>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가을학기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b>케어피플 &amp; 호스피스</b>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챌릴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McLean Psychiatric Services</b>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b>신디 리 부동산</b> 텔리 전문 사업체 이루시아 703-338-0008
<b>하얀나무치과</b>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b>F teck connection, LLC</b>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b>와니 건축</b>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마태오 흥 종합보험</b> 자동차, 집, 사업체, 은퇴연금 장기간호 / 생명 / 건강보험 703-969-8956 703-969-8954	<b>Kitchen, Deck Sunroom</b> 혜성건축 김영수 (요셉) 571-477-5996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찬들리 HYUNDAI</b> 김경태(바오로) 571-314-3467	<b>Golf Lesson</b> 성인레슨 및 월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손 678-800-3451
<b>Penta Olympic Fencing Club</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b>ASSA 종합보험</b> 최 클라라 생명, 건강, 비즈니스 자동차, 주택 703-649-2110	<b>5분 도정</b> 즉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www.JCProvision2016.com 703-366-3286	<b>임경옥 부동산</b> Gangnam Realty & Management Group, LLC 703-944-1337	<b>김주현 회계사, 세법학 석사</b> Julie J. Kim CPA, MST 회계, 세무, 감사 jkim@juliekimcpa.com 703-462-9924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에스터'S 키친</b>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Landscape</b>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b>민 자동차정비</b> 703-869-9691

성사·교리·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작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 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